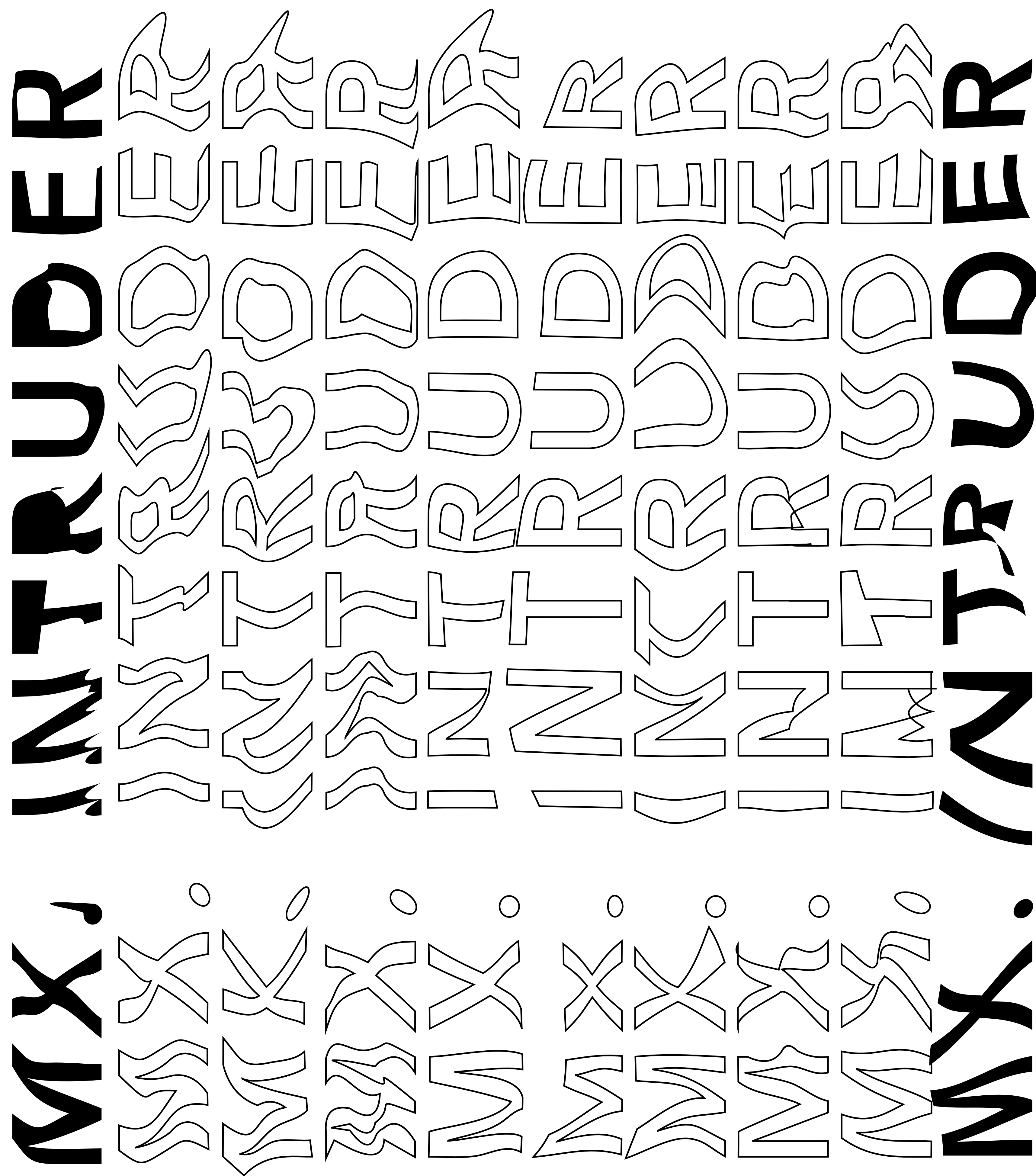


HAENA CHO
INSANE PARK

JULY 07
- AUGUST 12
2023



06130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27-15, 태리빌딩 8층
8F, 27-15 Gangnam-daero 94-gil, Gangnam-gu, Seoul 06130, South Korea

T +82 2 566 5310
www.materiauxgallery.com
info@materiauxgallery.com

MATERIAUX

인세인박 조해나: 틈입자

“내 눈엔 맷돌이 걸려있네.^[1] 아이들아,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다오. 앞을 볼 수 있는 당신이여, 신의 가호로, 내게 말해주오.”

- 모리스 마테를링크 <틈입자(The Intruder)> 중
할아버지의 대사

“틈입자(The Intruder)”는 동명의 희곡에 등장하는 대가족 인물들 중 맹인 할아버지에게만 감각되는 불가사의의 존재다.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 밤바람 사이를 비집고 들려오는 낫질 소리에 이어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식탁에 앉았다가 왼쪽 방으로 들어서려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낀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묻는다. 내게 들려오는 소음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내게 느껴지는 인기척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너희에게는 들리지 않느냐고, 보이지 않느냐고... 이에 가족들은 답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것도 보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침입하지 않았다고, 꿈이라도 꾸신 건 아니냐고...

끝내 무언가가 저택 전체를 엄습한다. 갓 태어난 농인 손자는 뒤늦은 첫 울음을 터뜨리고, 그를 낳고 중태에 빠져 있던 딸은 죽음을 맞이하니 말이다. 그러나 손자가 누워있는 오른쪽 방의 문, 딸이 누워있는 왼쪽 방의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는다. 대신 거실을 배경으로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황으로 미루어 추론할 뿐이다. 이들이 주고받는 대사는 서로 엇물리며 결국 하나의 형상, 틈입자를 향한다. 동시에 그러한 연쇄고리의 효과로 인해 틈입자는 계속해 미끄러지며, 그전까지 관습적이고 안정적이었을 저택을 비집고 투명하게 떠다닌다.

‘실체’로서 제시되었더라면 적나라하게 마주했을 생과 사의 운명은, 틈입자라는 극적 장치에 의해 미미한

[1] 서구권에서 쓰이는 관용표현 ‘a millstone around your neck’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해당 관용구는 ‘목에 걸린 맷돌’로 옮겨지며, 피할 수 없는 불편한 문제나 책임을 비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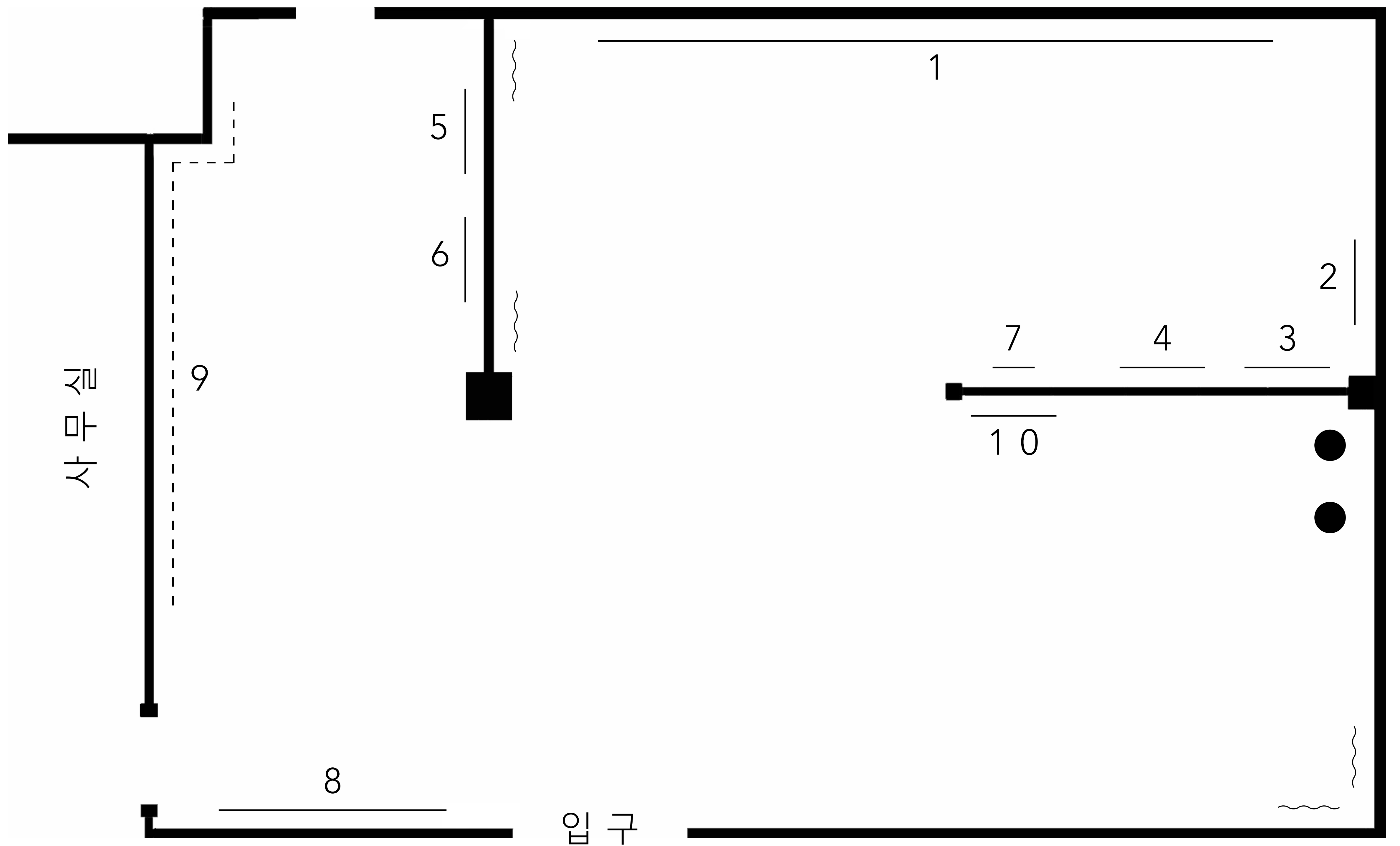
7.07 - 8.12.
2023

문틈 사이로 잔광처럼 새어 나온다. ‘상징’으로서 틈입자는 실재를 단순히 복사하는 대신 우회하며, 현상을 달리 감각할 것을 요구한다. 틈입자가 외부로부터 침입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 이야기에 희비를 불러온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버무려 만들어낸 무엇이다. 다시 말해 틈입자는 관념들의 떠돌이에 붙여진 이름이다. 나는 관념들 사이를 부단히 유동하는 틈입자에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내면 세계에서 탈주한 그것의 모습을 상상한다.

《Mx. Intruder》는^[2] 틈입자에 운동성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획이다. 두 작가는 타성화된 것들로부터 특정한 요소를 차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키고 그 의미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한다. 조해나는 기계장치의 반복적 동작들을 마주 물리는 작업을 통해 비시간적 지평을 제시하거나 영상 스크린에 결부된 시각성을 영상 이미지에서 물리적 스크린으로 확장한다. 작가에 따르면 “조각적 태도”로 제작한 작품들에서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성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맥락 안에서 형성된 유기체로 인식될 수 있다.

인세인박은 스스로에게 임의의 세 가지 핸디캡을 설정한 뒤 화면들을 각각 그리고 모두 검게 채우거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상 준인공지능의 우발적 행위를 모사하는 작업을 통해 창작에 대한 규범화된 틀을 비껴간다. “창작자보다는 편집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작가의 태도는 경계 짓기가 아닌, 경계의 무화에 가닿는다. 《Mx. Intruder》는 구심적이거나 권위적인 미학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출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민감하고 정교한 감각을 발동시킨다. 갑자기, 수시로 틈입하는 그것들을 이제 당신께 보낸다.

[2] “Mx.”는 이분법적 젠더 접미사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어떤 존재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1 인세인박, 우리는 당신의 어떤 몸짓도 이해할 수 없다, 2020, 캔버스에 유채, 네온, 단채널 영상, 가변 크기, 27'23''

〈우리는 당신의 어떤 몸짓도 이해할 수 없다〉(2020)에서 인세인박은 임의의 세 가지 핸디캡을 설정한 뒤 캔버스에 검은 선을 긋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취한다. 입으로 붓을 물거나,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우거나, 눈을 가린 채 양손을 활용해 그린 그림들은 나란히 검정 화면을 이룬다. 화면들은 일견 근사한 결과를 낸 듯 보이지만, 서로 다른 신체 부위가 각각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남긴 상이한 흔적들을 나타낸다. 함께 설치된 네온은 작가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환경 내에서 창출할 수 있었던 선의 최대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 작품은 ‘장애예술’에 대한 규범적 기대치에 대한 작가의 성찰로부터 출발했다. 요컨대 비장애 중심의 미술계는 ‘장애인이 부차적 신체 부위를 사용해 한계를 극복하는 표현을 해냈다’고 평가하기 일쑤이며, 그 대상은 구상미술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반복/수행, 동일성/차이, 신체/언어 간의 의미를 동요시키며 오늘날 미술을 둘러싼 상징적 질서에 균열을 촉발한다.

- 2 인세인박, Error (3), 2023, 캔버스에 아크릴, 과슈, 80.3 x 53 cm
- 3 인세인박, Error (5), 2023, 캔버스에 아크릴, 과슈, 80.3 x 53 cm
- 4 인세인박, Error (2), 2023, 캔버스에 아크릴, 과슈, 80.3 x 53 cm
- 5 인세인박, Error (4), 2023, 캔버스에 아크릴, 과슈, 80.3 x 53 cm
- 6 인세인박, Error (1), 2023, 캔버스에 아크릴, 과슈, 80.3 x 53 cm

회화 시리즈 〈Error〉(2023)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의 ‘내용-인식 채우기 (Content-Aware Fill)’ 기능을 재전유한 작업이다. 해당 기능은 선택한 이미지 영역을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서 샘플링한 내용으로 매끄럽게 채우기 위한 것이다. 작가는 이 기능을 사용하며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엉뚱하게 채워질 때, 즉 사용자의 의도를 비껴가는 지점을 파고들어 원본을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도록 유도했다. 인세인박은 이러한 ‘약-알고리즘’의 창작물을 모사하며 “창작자보다는 편집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자신의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AI 시대’라 명명되는 오늘날,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 문제를 둘러싼 주객 분리를 벗어나 양자의 경계선 사이를 유동하고 숨 쉴 수 있는 틈을 내보인다.

~~~~ 인세인박, System, 2023, 벽에 아크릴, 과슈, 가변 크기

벽화 작업 〈System〉(2023)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작가는 내용-인식 채우기 기능을 통해 단어 ‘SYSTEM’을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한 후, 전시장 벽 곳곳에 옮겨 그렸다.

7 인세인박, Error, 2023, 단채널 영상, 1'01''

영상 작품 〈Error〉(2023)은 구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잘못된 연산을 수행했을 때 무한대로 솟구치는 ‘ERROR’ 팝업창을 픽셀화한 것이다. 인세인박은 기존 체계 속 오류로서 인식되는 특정 형상을 변형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이미지의 다양한 갈래를 모색한다.

8 조해나, Title, 2023, 선풍기, 스테인리스 스틸, 믹스 미디어, 가변 크기

〈Title〉(2023)은 양자역학의 ‘시간 무관 섭동 이론’에서 해밀토니언, 즉 전체 에

너지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그림 1])을 시각적으로 변형한 작품이다. 섭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의 계를 가리키는 해밀토니언(이하 'H')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계가 변화한 상태를 이론화한 것이다. 예컨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만유인력에 기반하여 지구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공전하는데, 다른 행성의 섭동이 가해졌을 때 지구는 매우 미미할지라도 기존의 궤적에서 다른 궤적으로 이동한다. 위 방정식에서  $V$ 는 아주 작은 섭동 변수를 가리키며, 이는  $H_0$ (에너지 고유 상태)에 대해 일종의 틈입자로 역할한다. 그리고 시간 무관 섭동 이론은  $H$ 가 시간에 무관한  $H_0$ 와  $V$ 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작품을 둘러싼 전체 에너지는 선풍기를 개조한 조명 장치가 회전함에 따라 관람객의 시지각을 교란하며, 고정 관념화된 선형적 시간관을 중단시키고 거스른다.

$$\hat{H} = \hat{H}_0 + \epsilon \hat{V}$$

[그림 1] 시간 무관 섭동 이론에 의거한 해밀토니언 기본 방정식

9 조해나, *Infinitely Small and Infinitely Dense*, 2022, 30개의 디지털 드로잉, 선풍기, 220 x 160 mm (ea.), 가변 크기

〈*Infinitely Small And Infinitely Dense*〉(2022)는 디지털 드로잉 여러 장을 가변적으로 배치하여 지평선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작가는 미세한 송풍을 가해 난류의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시각 이미지 요소들을 무의식적으로 통일된 전체로 결합하는 우리의 인지 과정을 꺼내어 새삼스레 사유하도록 한다.

● 조해나, *Un-Coordinate*, 2022, 모터, 컴퍼스, 믹스 미디어, 가변 크기

〈*Un-Coordinate*〉(2022)은 반자동 장치에 원을 그릴 때 쓰는 도구인 컴퍼스의 기능을 입힌 작품으로, 두 장치가 각자 일정한 경로를 왕복하며 선을 그린다. 그 움직임을 멍하게 바라보다 보면 감각기관은 점차 시각에서 청각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벽의 모서리를 튕겨 나가는 컴퍼스의 투박한 쇠소리와 벽에 선을 긋는 연필심의 서걱거리는 소리는 한층 세세한 운동에너지를 감각하도록 한다.

10 조해나, *White Shadow*, 2021, 돋보기, 안경, 2채널 영상, 가변 크기, 5'27''

〈White Shadow〉(2021)는 두 개의 모니터와 시각 보조 장치로 구성된 작품이다. 3차원의 전시공간이 X, Y, Z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X축에 평행하게 놓여진 모니터는 콜라주식 문자 및 영상 텍스트를, Y축에 평행하게 세워진 모니터는 백색 화면을 내보인다. 시각 보조 장치를 사용했을 때, 양 화면은 서로 얹히고설키며 임의의 상호텍스트를<sup>[3]</sup> 형성한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들 사이에 생긴 하나의 현재적 공간 안에서 어떤 현재의 텍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다. 이때의 현재적 공간이란, 본 작품의 맥락에서 관람객의 관여를 통해서 구성된다. 더 나아가 지금-여기에 생성된 상호텍스트에 말미암아 감각의 “흡수이자 변형”을 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결국 조해나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특성인 운동성 및 가변성은 기계적이거나 법칙적인 질서로서가 아닌 불확정적이고 확률적인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작업의 주제와 맞닿는다.

[3] 이 글의 문맥에서 텍스트는 혼합적 또는 통합적 매체 환경 안에서 확장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 음향 등을 포괄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자 변형”이다. 이러한 현대적 텍스트 개념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유동적이며, 수용자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열린 존재다. Kristeva, Julia, 『Word, Dialogue and the Nove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66.